

# 환경관리의 체계화,

# 이론화는 관리인의 과제

삼성코닝(주) 구미사업장 녹색경영그룹 박희관 과장

환경관리인의 개념을 바꿔 나가는 사업장이 있다. 삼성코닝(주) 구미공장 녹색경영그룹. 폐수처리장이 아닌 수질환경관리센터, 폐기물이 아니라 자원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정립해나가는 이곳에 환경관리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박희관 과장을 '이달에 만난 환경인'으로 만나보았다. (편집자 주)



▶ 녹색경영그룹 동료들에게 좋은 선배로 남고 싶다는 박희관 과장(앞줄 좌측 두번째). 동료들에게 그는 "살집아저씨"라는 별명으로 통한다.

폐수처리장, 환경관리 등 낯익은 명칭 대신 녹색경영, 자원관리소, 수질·대기환경관리센터로 불리우는 이곳 삼성코닝 환경관리 현장을 대하면서 필자는 참으로 색다른 느낌을 받았다.

커피한잔 마시고 버리는 종이컵이 자원이라는 생각이 들고 냄새나는 폐수처리장을 돌아보며 자원이 재활용되는 곳이라는 느낌이 들어 친근했다. 참으로 환경관리현장을 업그레이드 하는 여위가 아닌가 싶다.

서울에서 3시간 남짓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초록은 짙어지고, 대기 속의 봄기운은 완연해진다. 그리고 구미에 위치한 삼성코닝(주) 구미사업장은 그렇게 봄 한 가운데에 서 있었다.

「에너지 비용 189억원 절감」, 「2000년 에너지절감사례 우수업체 선정」등 화려한 타이틀 아래 유명해진 삼성코닝 구미사업장 방문, 금방 구미환경출장소를 다녀와서 바쁜 박희관 과장을 만났다.

마냥 바빠 보이는데 인터뷰가 부담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며 삼성코닝의 전반적인 환경관리상황을 들었다. 브라운관용 유리를 생산하는 삼성코닝 구미사업장은 에너지와 폐수·폐기물을 절약·재활용하는데 주력해 큰 성과를 냈다.

33만㎡에 1천3천여명이 일하는 삼성코닝은 전자소재 사업체로 연간 에너지 비용만 매출액의 7%인 340억원 규모다.

따라서 에너지를 절약·재활용하는 것이 기업 이익에도 큰 도움이 돼 지난 3년 동안 이에 대한 집중 투자를 한 결과, 비용 189억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한다. 먼저 공정에서 나오는 하루 1만1천톤의 폐수를 절반으로 줄이고 그 중에서 70% 이상을 재활용했다.

또 공정의 폐기물인 '오니'의 90%를 재가공한 뒤 원료로 사용하는 기술을 자체 개발했다.

연간 1만톤의 슬러지를 매립하지 않고 100% 시멘트 원료로 사용했다.

이밖에 다량의 온수를 사용해 온 연마공정의 세정 작

업을 소량의 용수 및 고압방식으로 변경하고 용해로의 열을 제품건조용으로 재사용 했다. 이에 따라 지난 98년 65억원, 99년 67억원, 지난해 57억원 등 3년 동안 189억원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올렸다.

"투자회수 기간이 2.5년 이내면 환경관리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투자합니다"라고 말하는 그는 경영자의 환경에 대한 마인드를 높이 인정하고 감사한다. 최근 유리업계 세계 최초로 질소산화물 제거설비인 De-NOx System(SCR: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등 환경설비투자와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은 국내 최고가 아닐까 싶다.

특히 박희관 과장은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수집에서 최종처리 및 재활용까지 관리와 폐기물의 종량제, 실명제, 4R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체 환경관리의 중감책임자로서 폐기물을 자원이라고 믿고 실천하는 사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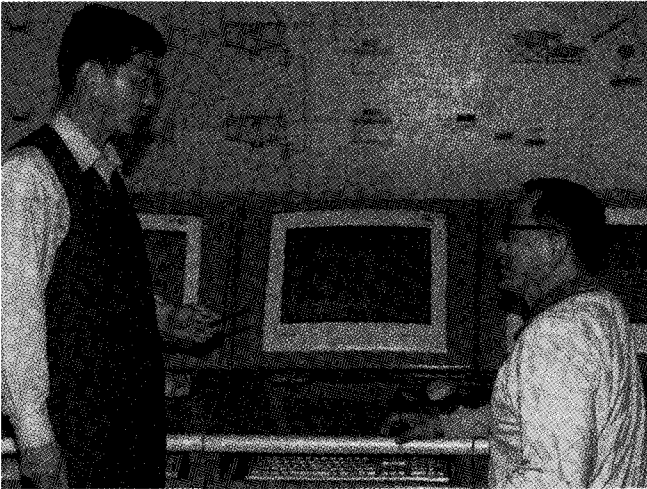
### 폐기물보관소가 아니라 자원관리소 어때요?

폐수처리장, 환경관리 등 낯익은 명칭 대신 녹색경영, 자원관리소, 수질·대기환경관리센터로 불리우는 이곳 삼성코닝 환경관리 현장을 대하면서 필자는 참으로 색다른 느낌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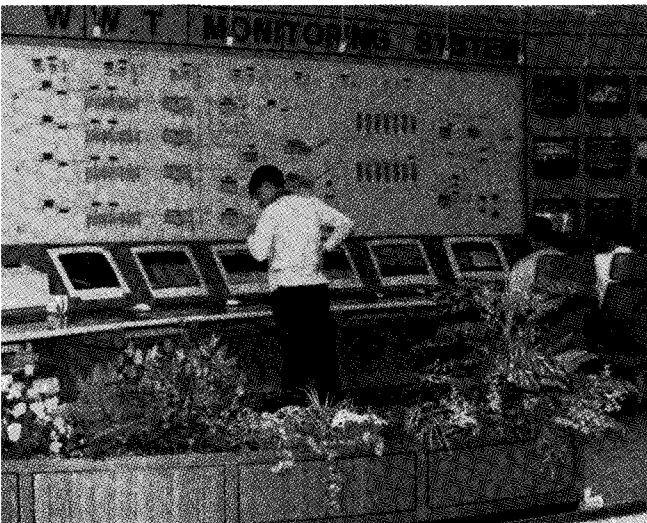
커피한잔 마시고 버리는 종이컵이 자원이라는 생각이 들고 냄새나는 폐수처리장을 돌아보며 자원이 재활용되는 곳이라는 느낌이 들어 친근했다. 참으로 환경관

리현장을 업그레이드 하는 어휘가 아닌가 싶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농지개발조합 공무원이 되기 위해 수험준비를 하던 중 현재 삼성전기 조치원 공장에 근무하는 '육성하'라는 친구가 대학 환경공학과에



↑ 평상시는 좋은 형과 같은 사람이지만 일에 있어서만은 철저한 전문환경관리인이다.



↑ 삼성코닝의 환경관리는 100% 자동으로 관리된다. (수질환경관리센터 내부 전경)

다니고 있었는데, 향후 전망이 좋을 것이라고 말하더군요. 그 말에 환경관련학과를 선택, 자연스럽게 환경쪽에 발을 들여 놓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는 지금도 환경분야로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한다.

아침 5시 반에 일어나 6시 반까지 운동과 식사를 하고 7시20분까지 출근한다. 출근 즉시 이메일 및 주요 업무를 챙기고 8시 조회를 시작으로 하루업무가 시작된다. 현장 환경관리센터를 돌며 세부 사항 및 변동사항을 체크·결제 하고, 업무를 지시한다. 오후 5시 업무를 종료하고, 사내에서 실시하는 일본어를 1시간 청강하고 퇴근, 대학원 수업을 위해 금오공대로 향한다.

### 환경관리의 이론화는 앞서가는데 꼭 필요합니다

대학원에서 환경공학을 전공하는 그는 "환경관리인들 대부분은 실무에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론화 체계화 또는 학문화하는 데는 상당히 서툽니다. 저 역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환경관련 이론을 정리해 두고자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라고 대학원 공부에 대한 동기를 말한다.

단점을 알고, 문제를 접근해 해결해나가고자 시작했다는 말이다. 실제 국내 이론서와 실무의 이질화는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환경관리 지침서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

"환경관리의 이론화 체계화는 현 환경관리 종사자가 해야 할 과제입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각종 매체를 통해 알려지는 환경관련 실무자료는 관리인들이 정리하는 것들이죠. 이렇게 될 때 환경관리의 수준이 높아지고 앞서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출장시 아사히글라스가 10~16종류의 폐기물을 분리수거 하는 모습에 감명을 받았다는 그. 그래서 인지 삼성코닝 사업장내 분리수거함은 종류가 많다. 폐기물이 아니라 자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지금은 대부분의 기업이 배출후의 관리는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제부터는 원료에서부터 공정개선을 통한 사전오염방지체제로 가야합니다."라고 나름대로의 환경관리방향을 제시한다. 이와 함께 어린이들의 환경교육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한다. 환경교육은 장기적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해야 한다고.

품의서를 어떻게 작성하나요?

지금은 13년차 고참이지만 초창기 자가측정대행업소에서 경력자로 삼성코닝에 입사했을 때 많이도 힘이 들었다 한다. "삼성의 업무양식을 몰라서 당황했어요. 등록업체 선정 및 품의서 등 서류작성에까지 혼자 하다 보니 퇴근 시간이 없었습니다."라고 회고한다.

필자가 보기에는 대체로 순조로웠던 것 같다. 지금까지 환경에 대한 남다른 관심으로 환경관련 모임을 여러개 가지고 있다는 그. 인터뷰한 그날에도 퇴근 후 환경관련 모임이 있다고 했다. 같은 대학 환경관련 일을 하는 선후배의 모임이라는데...

"폐놀사건 이후 환경에 대해서는 과도기라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시기 중간에서 발판역할을 한 선배로 남고 싶습니다." 어떠한 선배로 남고 싶느냐에 대한 그의 답이다.

나이를 먹어도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이고 싶다는 그. 조금은 열심히 살고 싶다는 그는 환경관련분야의 가이드로도 활동해보고 싶단다. 우리나라의 우수한 환경관리현황을 외국사람에게 알리는 일 말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환경관리에 있어서도 앞서가야 한다는 것. 그의 꿈이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이외에도 오직 한길만을 걸어오고 한길만을 걷고 있는 그가 가지는 꿈의 연장선 역시 환경이다. 좀더 노력하는 습관, 좀더 적극적인 사고가 환경보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믿는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다.



## 환경기술정보총람3 발간

원고 및 광고문의 : (02)852-2291